

사랑해! 아가야 ②

‘영’ 편이 이러니 그만 뒤야 할까. 나도 최선을 다 한 거니까 이제 된 걸까? 그래도 ——— 책에는 6개월 동안 먹이는 게 좋았는데...’ 처음에는 초유만 먹이겠다던 내게 욕심이 생긴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절부절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며 모유를 먹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윤경아, 너 참 대단하다. 그렇게 6개월간이나 먹일 수 있는 비결이 뭐야? 좀 가르쳐 줄래?” 친구는 아침에 아가가 젖을 충분히 빨아 주면 젖이 빈 상태에서 출근을 하고 점심시간에 국물을 안 먹는 식사를 할 경우엔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참을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유병을 준비했다가 수시로 조금씩 짜내면 된다고 얘기해줬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백일까지만 먹이겠다고 다시 마음 먹고 모유를 계속 줬다.

출근 첫날.

아직 부기가 다 가라앉지 않아 퉁퉁 부은 어색한 얼굴로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모유를 먹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얼마간은 오후 근무를 집에서 하도록 하세요.” 하시는 게 아닌가. 아주 의외였다.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약 한 달간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근무하고 있는

오전 중에는 아가가 분유를 한번씩 먹곤 했는데 얼마 지나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유를 먹으려 들질 않는거다. 그러나 또 이대로 포기할 내가 아니다. 남편과 함께 모유 먹이기를 위한 작전을 세웠다.

1단계 : 아기가 자고 있을 때는 배고프겠다 싶은 시간에 살며시 안아서 잠결에 먹도록 유도해 본다.

2단계 : 배가 고파서 울때는 아가를 기타 안듯 안고서 흔들흔들 흔들면서 먹여본다.

3단계 : 그래도 힘들때는 우는 아가를 달래서 분유를 조금 먹이다가 순식간에 분유병을 빼고 대신 젖을 물린다.

이렇게까지 해가며 꼭 젖을 먹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처음 생각을 간직했다. 분명 아가한테 제일 좋은걸 거야.

한 달을 넘게 미역국, 곰국 같은 걸 먹다보니 매콤한 음식이 먹고 싶어졌다. 엄마가 말리신다. “매운 것 먹으면 아가 똥꼬가 빨개져서 아기가 아플거야.” 막 버무린 생김치도 먹고 싶었다. “푸른 것 먹으면 아가변이 파랗게 나온다.” 천상 늘 같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김치도 묽게 씻어 먹어야 하고 밀가루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사실 모유먹이는 일이 이제 선택사항이 되어 버렸다.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엔 의당 분유가 아가의 먹거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다. 그러나 나의 경우엔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가 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감동스럽게 받아들여졌고, 나의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감사를 드릴 수도 있었다. 비로소 어른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큰 형님 경우엔 분유로만 아이들을 키우셨다. 젖을 먹이는 나를 보고 형님이 말씀하셨다. “동서가 부럽다.

우리애한테 모유 한번 안 먹인게 이제야 후회 가 돼. 그때는 몰랐는데 모유 먹여 키운 친구 애들이 감기 한번 안 걸리고 튼튼히 자라는 걸 보면, ‘모유 먹인 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곤 해. 그래서 셋째를 낳는다면 그때는 기필코 모유를 먹여볼 생각이야... 동서! 힘들어도 참어. 동서가 잘 생각한거야.” 엄마 마음은 다 같은가 보다.

나의 직장 언니 한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모유를 먹인 것을 본 적이 있다. 가끔 아가를 돌보고 계신 분이 아가를 데리고 직장으로 와서 아가에게 젖을 먹이고 가기도 할 정도였다. 참 보기 좋았다. 그 해 겨울, 직장에서 1박이 낀 직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모유를 먹이고 있던 언니가 오후가 되자 통통 불은 가슴 때문에 아파하는 걸 봤다. 숙소로 돌아와 젖을 짜내곤 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연세가 많으신 엄마뻘 되는 분께서, “오우, 젖몸살이 있을 땐 아기가 빨아야 제일 시원한거야. 안그래? 근데 아기가 없으니 어찌지? 좋은 일 한 다 셈치고 우리중에 누가 조금만 빨아주면 좋겠는데 누가하지?” 하고는 나이 어린 우리들이 앉아있

는 쪽을 휘익 돌아보시는 게 아닌가. 그 때는 워낙 뭘 모르는 나이 어린 20대 초반인지라 모두들 소리를 꽤 지르면서 기겁을 했던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은 아닌데 말이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언니가 피식 웃으며.

“첫 아이 때는 젖을 조금밖에 못 먹였었어요. 아이가 잘 안먹는다 싶어 오히려 형편도 그러니

잘됐다 생각하고 일찍 끊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제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둘째 때는 할 수 있는 한 먹여 볼 생각이예요. 아가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행복해요.”하고 말했다.

요즘 언니의 둘째 아이 영진이는 모유를 먹인

덕인지 마른 체격이지만 감기 같은 잔병치레를 안 하고 잘 자란다고 좋아한다.

그런 언니 모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모유 먹이는 엄마가 되어지 했나보다.

그렇다.

이런 저런 것 다 생각해 보면 모유 먹이길 참 잘 한 것 같다. 나를 통해 맑게 웃는 아들 녀석을 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가끔은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

이젠 나보다 늦게 아이를 낳은 친구들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 비결이 뭐냐고...

생각한다.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모유를 쥐야 한다고... PPFK

